

구례군, '고온다습 기온' 벼 출수기 전후 방제 당부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우려
적기 방제 여부로 수확량 달라
방제역량 강화 사전교육 진행
"병해충 피해 예방 최선 다해"

구례군 등이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 병충해 피해가 예상돼 예방을 당부했다.

구례군은 최근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 지속으로 이삭도열병 등 벼 수량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기 방제를 철저해야 한다고 농민들에게 당부했다.

장마 후 계속된 무더위로 농작물이 연약해져 병해충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벼의 경우 벼멸구·흑명나방·도열병·잎집무늬마름병, 고추는 역병·탄저병, 과수는 탄저병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벼 출수기에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은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도열병, 흰잎마름병, 흑명나방, 벼멸구 등으로 적기 방제 여부에 따라 쌀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달라진다.

병충해는 세균벼알마름병을 주의해야 된다. 세균벼알마름병은 이삭 패기 전후 30도 이상의 높은 기온과 다습한 환경이 계속될 때 잘 발생된다. 최근 여름철 고온과 잦은 비로 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수시로 살펴 초기에 방제해야 된다.

증상은 감염 초기에 벼알이 맏히는 부분부터 갈색으로 변하면서 점차 벼알 전체가 변색되고 여물지 않아 이삭이 쪼갠다. 방제는 이삭 패기 전후에 가스가마이신, 옥솔리산 성분 등의 등록약제로 방제해야 된다. 특히 종자를 통해 전염되므로 건전 종자를 사용해 병을 예방해야 된다.

이삭누룩병도 조심해야 된다. 이삭누룩병은 이삭 패기 전후비가 자주 내리다 습한 환경이 되면 잘 발생한다. 이삭 표면에 둥근 공 모양의 황록색 돌출물이 보이다가 점차 검은색으로 변하므로 병에 걸린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곰팡이 포자가 붙은 벼알은 도정 후에도 검게 변색돼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방제는 이삭 패기 전후에 트리사이클라졸, 페리존, 헥사코나졸 성분 등의 등록약제로 방제한다. 오염되지 않은 건전



구례군 관계자가 벼 출수기 전 병충해 방제를 위해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종자를 사용하여 병을 예방하고 피해 이삭을 제거하여 병의 확산을 줄여야 한다.

먹노린재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충남, 전남북, 경북 등의 친환경 재배지를 중심으로 발생 시군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남 해안가 지역 발생 증가로 먹노린재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서는 철저한 예찰과 방제 필요하다.

작은 충격이나 소리에도 줄기 속이나 물속으로 숨어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눈물을 빼고 해 질 무렵 적용약제를 살포하

는 방식으로 방제한다.

군은 방제단을 대상으로 농약 취급 요령과 안전 수칙 등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방제 전 읍면별 이장 회의를 통해 방제 일정을 수립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 박근규 소장은 "전년도 피해 발생 지역을 상시 예찰하고 적극적인 방제 홍보와 지도를 통해 병해충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성현 기자

폭염 피해 예방 현장점검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 주재

여수시가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 주재로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폭염 취약지역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폭염경보가 열흘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시가 수립한 폭염종합대책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최 부시장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용암·현리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냉방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 자제, 휴식 등 폭염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이어 1만6200㎡(4900평) 면적의 첨단유리온실을 방문해 재배작물인 파프리카의 생육 상태를 살피고 냉방시설물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의 안전 조치 현황도 살폈다. 웅천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기본 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로 시간 조정 및 폭염쉼터 운영 등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마지막으로는 수산 증·양식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돌산 근내해역과 남면 화태해역의 가두리양식장을 방문하여 어업인에게 고수온 발생 시 대처요령을 현장 지도했다.

최정기 부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도양 복합문화센터 내년 상반기 개관 목표 조성

고흥군은 도양읍 일원에서 조성 중인 도양 복합문화센터가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양 복합문화센터는 연면적 2961㎡ 규모로, 키즈카페, 수영장, 다양한 교육 시설 등을 갖춘 주민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이다. 이 센터는 주민들에게 힐링과 문화생활의 새로운 터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이곳은 고흥군에서 2018년에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건설사 부도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고, 건축 중이던 건물이 방치돼 지역의 애물단지 노릇을 했다. 최근 감사원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2018년부터 시작된 해수탕 건립사업이 전라남도의 투자심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진행된 점과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 중단된 해수탕 사업을 추진한 점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미 고흥군은 2022년부터 해수탕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재검토하고,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도양 복합문화센터로 사업 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시행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했다.

도양 복합문화센터가 개관되면 도양읍과 금산면 등 남부권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복합문화센터의 준공을 통해 주민들에게 힐링과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



보성군이 통 씨감자를 활용한 기계 파종 연시회를 지난 14일 복내면에서 실시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통 씨감자 활용 기계 파종 현장 연시회

보성군은 지난 14일 보성군 복내면에서 농업인과 농기계 개발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기계화율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통 씨감자 활용 기계 파종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성군 감자 면적은 연간 1200ha(복감자 950ha, 가을 감자 250ha)로 전라남도의 50%가 재배되는 주산지지만, 씨감

자 파종부터 수확까지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요구돼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종자(씨감자)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거나 대부분 절단 씨감자를 사용해 씨감자 파종 기계화율은 1% 미만으로 낮은 활용도를 보인다.

이에 보성군은 통 씨감자 사용 권장을 비롯한 파종기 보급에 나섰으며, 이날 시

연한 감자 파종기는 일괄 파종작업(경운, 두둑 성형, 파종, 비닐멀칭)이 가능한 것으로 일정한 크기의 통 씨감자를 2줄씩 자동으로 파종하며, 시간당 10a를 파종할 수 있어 인력 파종 대비 90%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감자 파종기 현장 연시회를 통해 인건비 절감 가능성을 평가받았으며, 미비점은 감자 수확까지 관찰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장흥군, 고수온 피해어가 방문 '피해 최소화' 총력

장흥군은 득량만 해역 고수온 발생으로 인한 넙치(1만2000마리) 폐사 현장을 방문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양식 어업인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조 주의보 상황 발표에 따른 적조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올해는 유난히 짧은 장마와 바다수온

이 빠르게 오르는 기상변화로 득량만 해역은 7월 24일부터 수온 28℃가 넘는 고수온 주의보 발효됐다.

조기출하로 고수온을 피해갈 수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경기불황으로 출하가 늦어져, 성어인(2kg이상) 넙치 12,000마리가 폐사됐다.

피해액은 3억8000만원으로 추산되나, 재해보험에 가입돼 피해 규모를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사료 급이 중단, 액화산소 공급, 산소발생기 가동 등 다양한

방법을 현장에 적용해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른 양식어가에게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2일부터 적조가 발생된 관산읍 장항리 바다를 현장 점검하면서, 적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42개 어촌계 어민들에게 충분히 홍보 및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전정우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이 함께 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시 대표 간편식 제작·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교육 실시

순천시는 지난 13일부터 관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순천 대표 간편식 제작·마케팅 기본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식(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시는 관내 업소가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간편식으로 제작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이번 교육은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초교육은 간편식 제작 이론, 제품 촬영, 마케팅 이론 등을 다루는 2회로 구성된다. 심화교육은 밀키트 직접 제작 및 판매를 포함한 전반적인 실습교육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심화교육은 기초교육 대상자 중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4개 업소를 선발하며, 각 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편식 제작 교육을 통해 상품화될 수 있는 간편식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순천 음식문화와 특색이 담긴 간편식이 상품화돼 전국적으로 순천의 맛과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식도시 순천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inilbo (전일보). Includes Kakao Talk and Email details.